

# 설 명절 실내 마스크 벗나...자문위 논의

### 부분 착용-전면 해제...2단계 방안 유력 검토 23일 중대본서 결론...확진·위중증 추이 관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가 19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 사실상 정부가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결론 내기 전 마지막 의견 수렴 단계다. 실내 마스크 착용 조정 방안으로는 2단계에 걸쳐 완화하는 게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할 뒤 다시 모든 시설에서 전면 해제하는 식이다. 1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

겨두는 시설로는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이 거론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거나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인지가 그 기준이 된다. 적용 시기는 미지수다.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은 1월 말 이후, 늦어도 3월 사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대전과 충남 등 일부 지자체가 내년 1월중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던 만큼 정부는 설 연휴 이전에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

다. 지난 15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발제를 맡은 감염병 자문위원인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미 현 시점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할 여건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유행 규모 감소 ▲치명률 감소 ▲의료대응 능력 ▲사회적 위험인식 등 4가지 기준 중 사회적 위험인식을 제외한 3가지 요소는 충족했다고 봤다. 올해 전과력이 높고 중증도는 낮은 오미크론이 유행함에 따라 백신 또는 감염으로 면역을 얻은 사람이 늘어 5차, 6차, 7차 유행이 반복될 수록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현 시점에서 논의해야 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2월 들어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쉬운 겨울 한파가 본격 시작되며 BN.1 등 신규 변이가 확산되면서 일일 확진자 수는 8만명대에 진입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원도 2주 후 하루 10만명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BN.1과 BQ.1 계열 바이러스의 검출률을 합치면 약 25%로 1월 중에는 우세종이 꽤 유행이 더 커질 것이고 백신 접종률도 낮다"며 "병상과 의료대응체계, 백신 접종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엉뚱하게 실내 마스크 해제를 내세우다니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다. /뉴스



**광산구, 전 직원 제설작업 실시** 지난 주말부터 광주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한 광산구 전 직원이 19일 오전 제설취약지역과 시민이 자주 다니는 길목을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진행했다. /광산구 제공

## 학교비정규노조 “차별 해소·단일임금 개편, 21일 총궐기”

### “지난달 25일 총파업 이후 해결방안 내놓지 않아”

지난달 25일 총파업을 단행했던 광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차별 해소와 단일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전국 동시 총궐기에 나선다. 광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1일 오후 5시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총궐기 투쟁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단체는 “지난달 25일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전개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해

소와 단일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총궐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학교급식 노동자 5명의 폐암 사망 이후 진행한 교육청의 저선량 폐CT 중간결과 187명이 폐암의심으로 확인돼 연평균 비용 35배 높았다”며 “노동자들은 ‘건강한 급식’을 외쳤지만 교육당국은 대책 마련엔 나서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기만 기자

또 “지난해 인권위가 학교비정규 노동자와 공무원의 복리후생 수당 지급기준이 다른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과 산재로 시름하는 상황에서 처우개선 없는 교육복지 확대는 불가능하다”며 “교육부의 외면이 지속될 경우 유례없는 신학기 총파업 등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천기만 기자

## 북구, 20~22일 사흘간 마을 만들기 성과공유회 개최

광주 북구는 20일부터 사흘간 북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마을 만들기 성과 공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구 마을공동체, 아름다운 마을을 기록하다’를 주제로 올 한 해 마을만들기 공동체들의 활동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 개회식에서는 ▲마을공동체 활동 영상 상영 ▲2022년 주민자치 박람회·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보고 ▲공동체 활동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된다. 또 행사 기간 공모사업에 참여한 18개 마을공동체의 활동 사진과 작품, 주민자치박람회 우수 성과를 등도 전시된다.

북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 공모 사업 응모와 자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총 사업비 11억 3500만 원을 들여 106개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제21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최우수상 1건을 비롯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등 21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탄소 중립·기후환경 분야의 연합공동체 발굴은 마을 공동체 운영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기사

## 나주에 ‘우회전 신호등’ 첫 등장...“암체 운전자 사라지길”

### 나주경찰서, 지난 8월부터 지역내 12곳서 21개 운영 중

“횡단보도 초록불에도 우회전하는 암체 운전자들이 사라지길 바란다” 지난 16일 전남 나주 혁신도시 한 삼거리. 횡단보도 초록불이 일제히 켜지면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종종걸음으로 길을 건넜다. 이때 우회전을 위해 인도변 차선에서 달려오던 한 승용차가 속력을 줄이며 보행자와의 거리를 잦다. 서행하던 이 차량은 사람들이 모두 횡단보도를 건넌 것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속력을 높여 우회전했다. 같은 시간 편도 3차선이 교차하는

혁신도시 한 삼거리에서도 횡단보도 초록불과 무관하게 우회전을 재촉하는 차량들이 눈에 띄었다. 차량들은 먼 발치에서 보행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달려오다 속도만 잠시 줄이고 곧장 우회전했다. 이 삼거리와 사거리에는 횡단보도 주변에는 횡단보도의 신호에 반응해 작동하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었다. 1월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같은 조건일 경우 서행할 수 없다. 나주경찰서는 8월 당시 교

통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됐거나 우려되는 교차로 등 지역 내 12곳에 우회전 신호등 21개를 설치했다. 경찰청이 선정한 지역은 아니지만 향후 도입을 상정하고 자체 시범 운영에 나선 것이다. 나주경찰 관계자는 “올해 나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우회전 관련 수칙 홍보와 우회전 신호등 설치 덕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주=조성준 기자



## 전남도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20곳 선정

### 공정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중개문화 정착 기여

전남도는 최근 공정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중개문화에 기여한 부동산중개업소 20곳을 ‘모범 부동산중개업소’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도내 등록된 2379개 부동산중개업소 중 5년 이상 운영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사회 소외 계층 돕기 등 선행실적과 업무실적을 종합 평가해 이뤄졌다. 모범 부동산중개업소로 지정받은 업소는 지역별로 순천 4개소, 목포·여수 각 3개소, 광양·나주·영광·장성 등 각 1개소다. 모범공인

중개사 8명에게는 전남도지사 표창도 수여한다. 2022년 모범중개업소 1호로 지정된 광양 립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지난 11년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와 자원봉사 활동에 앞장서 도민이 신뢰하는 중개문화를 이끌었다. 또 진도백재호공인중개사사무소는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중개수수료 할인 서비스를 하고,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시장동향 모니터링 위원으로 활동하며 부동산 통계조사에도 적극 협력해 도정

## 광주 도심 건물 바닥서 균열·뒤틀림

### 30여명 대피...출입 통제·건축 안전 긴급 진단



광주 도심의 한 사무 건물에서 바닥 균열·뒤틀림 현상이 발생해 입주업체 직원 등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19일 광주경찰청·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2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6층 규모 건물에서 5층 바닥 건축재에 금이 가고 뒤틀리며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입주 기관·업체 관계자 3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다. 입주업체 직원들은 “무거운 의자가 떨어지는 느낌이 났다”,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건물에서는 3년 전에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건물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소방 당국·지자체 건축담당자가 합동으로 건물 안전 진단을 벌여 자세한 원인·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겨울철 실내 온도차가 커 압축제 약화로 바닥 타일이 들뜬 것으로 추정된다. /천기만 기자

# 농장직영 진남맹생이탕

예약문의 : 010-3925-3842

연소탕    수육    오리탕    닭볶음탕

## 박래섭

010-6480-3842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221

061)395-7977